

## 별첨2. 기초조사 자료 공유 및 논의 정리

### - 수원체육문화센터

- : 고령자 및 은퇴자 프로그램의 경우 요구가 있어 추진해보려 했으나 경쟁력이 없음
- : 지역 내 복지관, 보건소 등 다양한 교육제공기관들이 있음.
- : 보이지 않는 대상
  - 저소득주민, 장애인, 고령자, 중고생

### -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 : 단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음
- : 초등학생이 가장 많음
- : 장애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올 경우 전담강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 기관차원에서 준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장애인대상 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 토요일 운영? - 오전에 1타임만 운영함
- : 개인 신청자들을 위해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 성인과 노년도 실제 성문화, 성인식이 왜곡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배제되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 : 비장애인들의 경우 보호자가 아닌 관계없는 사람들도 많음. 같이 지내면서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음.
- : 장애인 이용 기관의 경우 장애인측에서의 거부감이 커 배제되는 대상이 발생하기도 함
- : 통합프로그램들을 늘려가면 어떨까 제안함

### - 수원시가족여성회관

- : 평생교육이 인문한, 취창업 등에서 하고 있는데 특성화가 없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음
- : 가족여성회관 - 수원 여성의 권익과 여권신장, 가족 공동체 회복, 양성평등
- : 40,50대 여성들이 주를 이루는데 고학력자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재취업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유희인력이 되는 것이 사회적 낭비일 수 있겠음
- : 남성, 청소년은 기관 이용이 적음.

## - 영통복지관

- : 10대가 있는 것은 치료센터가 있어서 많이 있는 듯
- : 50대 이상이 주요 이용층이라고 보여짐
- : 여성이 더 많은 상황임.
- : 영통구가 가장 많고 화성, 용인쪽도 많음. 오히려 수원시 타구에서 이용자가 접근성의 문제로 적음.
- : 제외대상 - 영유아, 임산부, 1급 신체장애
- : 신체활동과 관련되 시설은 고령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60세 이상일 경우)
- : 외국인의 경우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음.
- : 안내 데스크 인원이 기본적인 상담은 가능하나 많은 이용이 있진 않음
- : 지속적인 그룹을 생기거나 하진 않은 상황임
- :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복지관에 대한 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할 것이라 생각됨
- : 학습의 대상이나 참여자가 아니라 누구나 학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듯
- : 한국어 수업의 경우 경희대학교로 전체 이관했음
- : 할인을 받는 사람 - 수급자, 장애인, 노인
- : 보건복지부 운영 규정을 따라 전체 20% 이내 선착순으로 함.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방식 활용
- : 수급자는 무료
- : 다문화인 분들은 경제적인 규모를 보고 하고 있음
- : 전체기관수입의 10%, 3억이상
- : 영통이 4억정도

더불어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교육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듯 함

## - 우만복지관

-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 : 아무래도 단지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 : 10세 공부방, 뮤지컬 교실이 있어서 분포가 높음
- : 고령자 이용이 가장 많음
- : 여성이 높고, 남성은 아동, 서예, 컴퓨터 임
- : 한글과 문해교육 관련된 분들이 원거리 수강생임
- : 야간프로그램이 없음.
- 2달간 단전호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 서서히 늘어나고 있긴 함

- :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 신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음
- : 중년층이 갈데가 없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많음. 60대 정도가 되면 오히려 손주를 보기 위해 바쁜 사람들이 많다
- : 청소년들은 복지관 이미지가 좋지 않고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간다
- : 배제하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 이용자분들이 배제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들어 장애인분들의 경우 장애인분들끼리 하고자 하거나 나들이와 같은 전체 이용자 대상의 경우 다른 그룹의 이용자를 배제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는 경우가 있음.
- : 평생학습을 통해 배타적 조직문화가 공고히 되고 강화되는 경우가 있음
- : 교육프로그램의 목적과 복지관의 고유목적과 상이한 부분, 이용자들의 요구가 평생교육의 방향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음
- : 자기 경험치 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에 대한 욕구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음
- :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의 교육문화는 여가,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용. 웃고 떠들고 즐기고 싶다는 주민의 욕구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평생교육의 견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냐가 딜레마임.
- : 청소년들과 만나서 보면 배울거리, 할거리를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교육에 대해 논한다는게 한계가 있는 듯 함

#### - 연무복지관

- : 공부방 활용하고 있어서 10대 이하 이용이 있고 70대 이상이 많음.
- : 이용자들 스스로 다른 부류를 배제하는 상황들이 있을뿐
- : 진상민원은 없다. 반복되는 민원이 있을 뿐
- : 수급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했는데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여가를 즐길 상황이 아니고 문화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달라는 요구가 많아 주는게 없으면 안 옴.
- : 시간적으로도 폐지를 줍거나 병원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안될 경우가 있음
- : 1차 욕구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이 없음
- 공부방 운영을 직접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다가갈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제안함. 이것이 공감을 일으키더라.

#### - 수장북

- : 성별차이가 거의 없음
- : 청,장년층이 많음
- : 장애인복지관들의 경우 비장애인 일반 주민까지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 : 비장애 성인분들의 이용은 많지 않음
- : 교육프로그램에서 전체 이용자 대비 70%정도 장애인
- : 시각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이 많음.

- : 청각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이 있음
- :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소통은? 잘 안되고 있음. 지체와 발달장애의 소통이 안됨. 통합프로그램이 어려우며 시설이용의 경우 발달장애, 지체장애 이해와 배려, 통합이 안됨
- : 40세 이상이면 노인 발달장애로 봐야하는데 4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잘 보이지 않음.
- : 야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비장애인의 이용이 있지만 나머지는 부족함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있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본인 스스로는 전혀 문제가 없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문제가 있음.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만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교육이 없다고 생각됨.
- : 우리같은 학습관에서는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의식과 덕목을 갖추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 장애체험,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있으나 강의를 나가서 하면 유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음. 학교마다 공문을 다 보내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은듯 함.
- :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없을 경우 만났을때의 미숙한 대응은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
- :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 자원봉사학교라고 해서 모집해서 교육과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학교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교
- : 소수자들에 대한 배제가 일반적으로 지배된 오랜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깨는 것은 어려울 것임
- : 실습생들이 오면 장애인분들 대하는 것이 어떠한가  
처음에 대상자를 직접 만나는 팀의 실습생의 경우 3,4일은 교육에만 치중함.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쪽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음.
- : 교육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동의와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함

#### - 무봉복지관

- :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경로당도 이용하기 어려움 오갈데가 없는 상황임
- : 복지사업에서 대부분 저소득을 중심으로 하는데 연무동이 수원시 내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는데 노인복지관이 없고 종합복지관만 있음. 저소득이 아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음
- :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독거노인에 대한 연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수원탁틴내일

- : 장애인들에 대한 성교육을 하려면 장애인을 아는 인력이 있는가. 실제로 장애인들의 교육을 받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듯 함. 장애 유형별 특징을 알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실제 한다고는 하지만 깊이 있는 전문 인력은 부족함

: 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함

: 장애 노령인구에 대한 성교육, 교육 지원이 필요함

: 장년, 노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사회적으로 찾아봐야함

- 주요한 논의들 성인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필요

- 영유아, 그들이 양육자들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배제되고 있음. (프로그램 없음)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